

“예방접종·치료제 처방률 제고 집중해야”

도, 민간전문가 참여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회 회의 광주·전남 확진 1만4천명 돌파 이달말 정점 도달 전망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재유행이 신규 확진 1만4천명선을 넘어선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방역의 초점을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방향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6천737명, 전남 7천591명 등 총 1만4천3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1만3천30명(광주 5천521명, 전남 7천509명) 등 총 1만3천30명보다 하루 사이 1천300명 가량 증가했다.

연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은 이달 말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정점 예상 확진자 수는 2만명 안팎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고 취약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제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민호(전대의대 예방

의학 전문의) 전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권순석(전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현재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BA.5 변이에 의한 6차 유행과 관련해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행정기관 주도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점차 동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민간이 주도하도록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6차 유행은 8월 말을 기준으로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 완만

히 감소하겠지만, 초·중·고 개학과 연이은 추석 연휴라는 변수가 있어 이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6차 유행은 지난 5차 때와 달리 집단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위중증 병상 확충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선제 방역이 작동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현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구축 지원, 보건소 코로나19 인력 교육 등으로 방역 최일선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있다. /김영근기자

자치분권·지역상생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영호남 전문가들, 지속가능 자치분권 발전 논의

광주시는 18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대토론회는 광주·대구 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2016년부터 6회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주최 기관인 광주·대구시 자치분권협의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광주·전남·대구·경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영호남 관계기관이 참여해 한층 강화됐다.

토론회 개최식에는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국회의원), 최성욱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회장, 김병완 한

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을 비롯해 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14개 분과별로 총 82명의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가능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이라는 주제로 정순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시와 대구시 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지방분권이 주로 중앙의 관점에서 추진돼 왔다”며 정부 분권정책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재정분권을, 최우선 과

제로는 지역발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초광역협력 실현을 꼽고 “지역이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지역의 관점과 입장을 제도로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상현 변호사, 박진원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학회에서도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이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가치 재창출’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전공섭 호남대 교수, 나향도 추성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해 힘을 보탤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영호남 반도 체 동맹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균형발전 3.0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전남도는 18일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멘토링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의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 교육과 실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과정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가의 의지와 방법을 수립하는 ‘소셜미션’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설계 방법, 시장 조사·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 계획서 작성, 창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김재정기자

검찰총장에 광주 출신 이원석 지명

공정거래위원회장엔 한기정



자라는 점도 총장 낙점 이유로 꼽았다.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제대 보험 수사 외에도 검찰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이끌 적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차장검사, 광주지검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라며 “원리 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이원석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제대 보험 수사 외에도 검찰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이끌 적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

대통령실은 18일 조직·인적 개편과 관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민생이라든지 정책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될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는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라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비서관도 교체하기로 했다. 새 홍보수석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 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 불법 유통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불법 유통광고물 일제 정비는 사·자치구 10개반 38명, 민간용역반 14개반 37명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전통시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

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과 풍선광고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 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민간용역반 14개반(37명)을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축산물 검사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축산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를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야행 발골, 사업 계획서 작성, 창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도축장에 도입한 ‘신속검사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시의 하루 평균 소 도축 물량은 2020년 44두, 2021년 48두였으며 추석 명절 특별 대책기간에는 각각 56두, 63두로 평소보다 27%, 31%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시ริม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 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문 상담 ◀

집단지침의 법원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통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은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